

1.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全文)

- 『충암선생집(冲庵先生集)』 ‘4권(卷之四)’ -

역주 · 현행복

此邑風土別是一區事事殊異動可吁駭一無可觀氣候冬或溫夏或涼變錯無恒風氣似暄而着人甚尖利人衣食難節故易於生疾加以雲霧恒陰翳少開霽盲風怪雨發作無時蒸濕沸鬱又地多蟲類蠅蚊尤甚與凡蜈蚣蟻蚓等諸雜蠹蟻之物皆經冬不死甚爲難堪想北邊寒冽必少此害也

이 고을의 풍토는 유별난 한 구역이다. 일마다 서로 다르고 차이가 나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긴 하지만, 불만 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기후만 해도 그렇다. 겨울에는 혹 따뜻하기도 하고, 여름에는 혹 서늘하기까지 하다. 그 변화되고 착각을 불러일으킴이 일정하지가 않다. 바람기운[風氣]이 따뜻해 보이는데도 옷을 걸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매우 날카롭고 예민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 이처럼 사람들이 의복과 음식을 제대로 조절하기가 어렵기에 질병이 쉽게 발생하는 것이다. 더욱이 구름과 안개가 항상 끼어있어 날씨가 우중충하고, 맑게 갠 날이 적다. 맹렬한 바람과 소나기같이 괴상한 비가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가 하면 심지어 무덥고 답답하기까지 하다. 또한 땅에는 벌레 류가 많은데 파리와 모기가 더욱 심하다. 대개 지네 개미 지렁이들과 같이 우글거리는 온갖 것들이 모두 겨울이 지나도록 죽지 않아서 이게 견디기에 가장 힘들게 한다. 예상컨대 북쪽 지역엔 추위가 혹독하여 이런 피해가 반드시 적을 것으로 본다.

人居皆茅茨不編鋪積屋上而以長木橫結壓之瓦屋絕少如兩縣官舍亦茅蓋也村屋之制深廣幽深各梗(채)不相連屬號品官人外無溫垞堀地爲坎填之以石其上以土泥之如垞狀既乾寢處其上吾意地多風濕喘欬惡疾之類多緣此也

사람이 거처하는 집들은 모두 띠(새)로 덮은 초가집인데, 그 지붕은 띠를 엮어 끈 새끼줄로 매지 않고 긴 나무를 가로 엮어매어서 눌러놓았다. 기와집이라고는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운데 양현(兩縣)¹⁾의 관사가

모두 초가집일 정도이다. 촌락의 가옥구조는 집안 내부가 깊고 넓으며
 침침한데, 방들이 연이어 있지 않고 각 채[梗]²⁾로 떨어져 있다. 품관
 (品官)³⁾이라 불리는 사람의 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온돌이 없다. 방바닥
 은, 먼저 구덩이처럼 파헤친 후 이를 돌로 메우고, 그 위에 다시 진흙
 을 발라 마르고 난 뒤에 그 위에 거처하도록 되어있다. 내가 보건대
 바람과 습기가 많은 이 지역에서 천식과 기침이 많이 나는 악질의 질
 병이 많이 발생하는 연고가 바로 이와 같다고 할 것이다.

酷崇祠鬼男巫甚多嚇人災禍取財如土名曰朔望七七日(初七十七二十七)必殺牲
 爲淫祠淫祠幾至三百餘所歲增月加妖訛屢騰人疾病甚畏服藥謂爲鬼怒至死
 不悟

사당에 귀신 모심을 몹시도 숭상하는데, 그래서 남자무당이 매우 많다.
 무당들은 재앙과 화(禍)가 미칠 것이라고 남을 음박지르듯 으름장을
 놓으면서 재물 취하기를 마치 흙 밟듯이 손쉽게 처리한다. 명절[名日]
 과 초하루[朔] 보름[望]날, 칠칠(七七)일(7일, 17일, 27일)에는 반드시 생물
 (生物)을 잡아 희생으로 삼고 요사스런 사당에서 제사한다. 사당(祠堂)
 수가 무려 3백여 개소나 될 정도로 많고, 해마다 달마다 늘어나는 것
 은 요사하고 잘못된 말을 자주 들먹이며 날뛰는 이들이다. 사람이 질
 병에 걸렸어도 약을 복용함을 매우 두려워한다. 이는 귀신을 노하게
 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습속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죽을 때까지도 이
 의 그릇됨을 깨닫지 못한다.

俗甚忌蛇奉以爲神見卽呪酒不敢驅殺吾則遠見必殺土人始而大駭久而慣見
 以爲彼異土人能如是耳終不悟蛇之當殺惑甚可笑吾舊聞此地蛇甚繁天欲雨
 蛇頭駢出城縫數四云者到此驗之虛語耳但蛇多於陸土而已意亦土人崇奉之
 過耳

이곳 풍속이 뱀을 신처럼 매우 받들어 모신다. 행여 뱀이 보이면 사람
 들은 바로 술을 드리며 주문을 외곤 하는데, 감히 몰아내거나 함부로

1) 양현(兩縣)은 곧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지칭한다.

2) 원문에는 ‘梗(경)’이라는 자 옆에 한글로 ‘채’라고 부기해 놓고 있다. 이는 곧 즉 집의 한 채,
 두 채라고 나뉠 때 혹은 사랑 채 등이라 표현하는 것과 같이 집의 덩이를 분류할 때 쓰이는
 의미로 파악된다.

3) ‘품관인(品官人)’은 곧 품계(品階)를 받은 벼슬아치의 총칭임

죽이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멀리서 보자마자 바로 죽이곤 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이곳 사람들은 처음에는 크게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만, 내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자, ‘이곳 사람과는 다른 타지인이니까 능히 그렇게 하지’라고 여기는 것이다. 끝내 사람들이 응당 뱀을 죽여도 되는 것임을 느끼지 못하고 미혹됨이 더욱 심하니 실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내가 이전에 듣기로는 ‘이 땅은 뱀이 무척 번창한 곳이라서, 하늘이 비를 내리고자 할 때에는 먼저 서너 마리의 뱀들이 머리가 나란히 포개진 상태로 성(城)에서 나와 기어다닌다’라고 했는데, 나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는 다 허무맹랑한 말이다. 다만 뱀은 육지의 땅에도 많이 있지만, 이미 언급했다시피 이곳 사람들이 뱀을 존숭(尊崇)하고 받들이 너무 지나침에 기인하여 번창하게 되었을 뿐이다.⁴⁾

土人語音細高如針刺且多不可曉居之既久自能通之古云兒童解蠻語者此也 본토박이인 사람들의 말소리는 가늘고 드세어서 마치 바늘로 찌르는 것같이 날카로우며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많다. 머무는 기간이 이미 오래 지나자 저절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 옛 사람이 이르기엔 어린애도 만어(蠻語)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함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負而不戴有臼無舂擣衣無砧(以手敲打)治鑪無踏(以手鼓橐)

짐은 등에 지고 머리에 이지 않는다. 절구[臼]는 있으나 방아[舂]는 없고, 옷을 두드림에 다듬잇돌이 없으며(손으로 두드림), 쇠를 담금질 할 때에 풀무질하면서 발로 밟는 일이 없다(손으로 부채질하여 불을 일으킨다).

土人生員金良弼外識文者絕少人心鹵莽自品官下至微者皆交結朝貴(無人無顧佛者)其豪右求爲鎮撫(土人自星主以來流風已然不足怪也)次者旅帥次者書員(次

4) 작자가 이처럼 제주의 풍속 중 뱀 신앙에 대해 특별히 강조한 것은 당시 제주사회의 시류의식(時流意識)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즉 제주의 뱀신앙과 관련하여 전설로 전해지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서련(徐憐) 관관으로서 그가 김녕굴에서 뱀을 퇴치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서련이 제주관관으로 재직했던 시기(1513. 2 - 1515. 4)가 바로 김정(金淨)이 제주에 유배를 오기 5년 전이었음을 상기해보면 이처럼 제주인들의 지나친 뱀 숭배 풍속을 어느 정도 이해할 법도 하다.

以下非品官)持印貢生(皆平民等鄉吏)日各以漁利爲事毫縷細故皆有贈賂不知廉義爲何事以強制弱以暴劫仁不下君示以故官員貪如陸閑不以爲怪有廉義者蚩氓懷其惠而此輩笑其迂若不教以學文以開其心則永無移風之期蓋其心深喻於利不知其他有云廉善則以爲不利而深厭之矣若有高僧辨口怵以天堂地獄似亦不爲無助而土之僧徒皆畜妻村居頑如木石若如巫鬼者嚇人餅酒亦利之歸耳

본토박이 중 생원(生員) 김양필(金良弼)⁵⁾ 외에는 문장을 이해하는 이가 극히 적다. 인심이 어리석어 품관(品官) 이하 말단 관리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조정의 높은 사람과 사귀어 결탁되어 있으며(사람마다 불자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다)그 토호(土豪)들은 진무(鎭撫)되기를 구한다(이곳 사람들은 성주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유풍이 벌써 이러했으니 기괴하다함이 모자랄 정도이다). 다음은 여수(旅首)요, 다음은 서원(書員)이고(이들은 품관이 아니다), 지인(持印) 공생(貢生)(이들은 모두 평민 등으로서 향리이다)인데 날이면 날마다 제각각 이득 취하기를 일삼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모두 뇌물 증여가 이뤄지고 있었다. 예의와 염치를 모르는데 무슨 일인들 할 수 있겠는가?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모진 자가 어진 이를 박해한다. 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임금의 교시[君示]’⁶⁾도 내리고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리들은 육한(陸閑)⁷⁾처럼 탐오(貪汚)를 일삼으면서도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간혹 관리 중에서 염치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들은 그 은혜를 못내 감격해하지만 저 탐오한 무리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비웃는다. 만약 학문을 가르쳐 그 지혜로움이 열리지 않으면 영원히 풍속을 좋은 방향으로 바뀌

5) 김석익(金錫翼)(1885-1956)의 『탐라기년(耽羅紀年)』 중 중종(中宗) 31년(1536)조에는 김양필(金良弼)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실려 소개되고 있다.

“김양필은 본주인이다. 문장에 능하고 글씨를 잘 써 생원(生員)에 합격하여 관직이 교수(教授)에 이르렀다. 명륜당에 판상시(板上詩)가 있으며 백록동 규약은 김양필이 쓴 바다.<金良弼本州人也能文善書中生員官教授明倫堂有板上詩白鹿洞規乃其所寫也>”

6) 이 글에서 ‘君(군)’자의 의미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임금을 지칭하는 의미요, 다른 하나는 2인칭 지시대명사인 ‘그대’이다. 여기에서 ‘君示(군시)’는 ‘임금님의 교시’라는 의미로 쓰인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모두 후자인 ‘그대’의 의미로 쓰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작자의 외질(外姪)을 지칭(指稱)한다.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는 ‘김정’과 관련된 부분에 ‘공(公)이 그의 외질에게 답하는 글에, 제주의 풍토를 자세히 기록했는데...’란 표현이 있다..

7) 육한(陸閑)은 연산군11년(1505) 4월에 제주목사로 부임해 왔다가 중종 원년(1506) 8월에 탐오(貪汚)로 파면된 인물이다. 『관풍안(觀風案)』에는 ‘육한’의 이름자가 ‘閑’으로 되어 있다. 결국 김정이 제주로 유배되어 내려오기 13년 전의 목사였던 육한의 행적을 들어 탐오의 상징적 인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게 하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대체로 그 마음이란 눈앞의 이익에는 깊게 박혀있고 다른 것을 알지 못한다. 염치와 착함이 있다고 말할 때는 곧 이익이 되지 않음을 일컫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런 일에 매우 염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만약 말 잘하는 고승(高僧)이라도 있어서 천당과 지옥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설복(說服)시킬 수 있게 된다면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⁸⁾ 그러나 이곳 승려들 모두는 부인을 두고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대처승(帶妻僧)들이 대부분이어서 완고함이 목석과도 같다. 만일 무당들과도 같이 사람들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떡과 술을 준비하게 한다 해도 그 이익은 고스란히 그들 손에 넘어갈 것이다.

三邑地皆漢拏山之麓崎嶇磽确平土無半畝耕者如挑剔魚腹地似平曠而難遠望而凹隆故也雖有阜陵而難亂難辨勢如綱目或如亂塚雖多積石(就中最高者皆積石也)而不怪不雅不整皆頑礪黑惡見之可憎雖或有丘巒而皆孤擲隆頽(孤而不聳隆而又頽)无廻擁之勢唯見巨岳隆然當中礙睢而已其視君言多骨少肉有皆骨之風者大相遼絕回思前昔所賤土山如前義清州者何可得耶又山峰之頂必凹如鑊陷成泥潦峰峰皆然故謂之頭無岳此尤可怪

삼읍의 땅이 다 한라산 자락에 있어서 험하고 기름지지 않은 자갈밭 일색이다. 평평한 땅[平土]은 반무(半畝)⁹⁾도 없고, 밭을 가는 자는 마치 물고기의 뱃살을 칼로 도려내는 듯이 한다. 땅이 질퍽하고 넓은 것 같은데 멀리 바라보기 어려우니 그것은 땅이 낮았다 높았다 울퉁불퉁한 까닭이다. 비록 언덕이 있다 해도 어지러이 뒤섞여 있어 그 형세를 분간하기가 어렵다. 마치 그물눈 같이 얹혀있는가 하면, 혹은 어지럽게 무덤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것 같다. 비록 돌무더기[積石](이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가 모두 돌무더기들인 곳이다)¹⁰⁾이 많긴 하나 괴상하지도, 고상

8) 김정의 제주관련 글 중에는 ‘제주풍토록’ 외에도 ‘도근천수정사중수권문(都近川水精寺重修勸文)’이란 게 있다. 그 내용은 주로 불교의 진흥과 발전만이 당시 음사(淫祠)만을 숭상하는 제주도 민들을 교도하고 계몽하는데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쓴 글이다. 그가 유학자(儒學者)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진흥을 권하는 글을 쓸 수 있음은 그의 넓은 학식과 도량을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하다.

9) ‘一畝(일무)’는 ‘100보(步)의 너비’를 지칭함으로 여기서 ‘半畝(반무)’라는 표현은 ‘50보 너비의 땅’을 일컫는다.

10) 여기에서 ‘積石(적석)’의 의미를 ‘돌무더기’라고 옮겼는데, 아마도 밭을 경작하면서 생겨난 크고 작은 돌들을 모아놓은 형태이거나 아니면 오늘날 방사탑(防邪塔) 같이 돌탑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도 않고, 깔끔히 정리되어 있지도 않아 모두가 다 완악(頑惡)해 보이고 거무튀튀한 게 보기에 가증스럽다. 혹 산봉우리가 있으나 외롭게 서서 튀어나오거나 기울어진 형태로서(고립되어 있어 높이 솟지 못하고, 튀어나왔으나 이내 또 벗겨져 있어서) 높고 또 낮아 품어 안는 기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거대한 산악이 중앙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볼뿐이다. 눈을 부릅떠서 자세히 보려 해도 이미 가로막혀 더 볼 수는 없지만 내 본 것은 이미 그대[君]¹¹⁾에게 말했노라. 뼈가 많으면 살점이 적은 데, 이는 모두 뼈대에 바람이 든 산[皆骨山]들이기 때문이다.¹²⁾ 크기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격절 되어 있어 보인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앞서 옛날 이곳 산들이 마치 전의(全義)와 청주(淸州)의 산들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보잘것없는 바에야 어찌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랴.¹³⁾ 또한 산꼭대기의 정상에는 반드시 가마솥같이 움푹 패인 곳이 있는데, 함몰되어 진흙 속의 물웅덩이를 이루게 되는데 봉우리마다 모두 그러하다. 그러기에 그것을 ‘머리가 없는 산’, 곧 두무악(頭無岳)이라 일컫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야말로 더욱 괴이하게 보이는 것이다.

然若登漢拏絕頂四顧滄溟俯觀南極老人(老人星大如明星在天南極之軸不出地上若現則仁壽之祥唯登漢拏及中原南嶽則可見此星)指點月出无等諸山可盪奇胸如太白所云雲垂大鵬翻波動巨鰲沒者唯此可以當之惜吾霸囚勢不能耳然男兒落地橫截巨溟足踏此異區見此異俗亦世間奇壯事蓋有欲來不得欲止不免者似亦冥數前定何足與焉

그러나 만약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 사면으로 둘러싸인 망망한 바다를 돌아보고 아울러 남극(南極)의 노인성(老人星)을 굽어보노라면(노인성은 그 크기가 셋별과 같고 하늘 남극의 축에 있어 땅 위에 나오지 않는다. 만약 이 별이 나타나면 땅위에 어질고 장수하는 이가 많을 상서로운 징조이다. 오직 한라산과 중국 남악에 올라야 이 별을 볼 수 있다.) 월출산(月出山) 무등산(無等山) 등

11) <각주 6>의 내용을 참조할 것

12) 작자는 아마도 제주의 오름들의 형태를 두고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세(山勢)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뼈[骨]와 살점[肉]을 거론함은 아마도 온전히 바위로만 이루어진 형태를 뼈에, 흙덩이와 함께 있는 경우를 살점에 비유하여 나타낸 것으로 짐작된다. 예컨대 금강산의 경우 개골산(皆骨山)이라고도 불림은 바위산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인식과 상통한다 할 것이다.

13) 여기에서 ‘전의(全義)’와 ‘청주(淸州)’는 충청도의 지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현재의 충남 ‘전의면(全義面)’과 충북 ‘청주시(淸州市)’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작자인 김정(金淨)의 태생지가 충북 보은(報恩)임을 참고로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러 산을 가리켜 보며 흥중의 기구한 심사도 씻어낼 만할 것이다. 마치 이태백(李太白)이 천태산(天台山)에 올라 “구름 드리움은 대붕(大鵬)이 날개 쳐 퍼덕거림인가, 물결 일렁임은 거오(巨鰲)가 꿈틀거리려 잠김인가(雲垂大鵬飜 波動巨鰲沒)”라는 시구¹⁴⁾를 남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건만, 애석하게도 나는 귀양온 죄인의 몸이라 그럴 수가 없구나. 하지만 남아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바에야 큰 바다를 가로질러 이 색다른 곳을 한번 밟아보기도 하고 이 유별난 풍속을 보게 됨은 이 또한 세상의 기이하고 장쾌한 일이 아니던가. 대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오지 말자고 하여도 면하지 못하는 자가 있거늘, 사람의 운수 또한 미리 정하여진 것이니 내 어찌 만족하지 않을 수 있으랴.

漢拏及州邑地泉井絕少村民或汲水於五里則謂之近水或有終日一汲二汲而多鹹泉汲必以木桶負行(凡卜物多女負行)取多汲也

한라산과 제주읍 땅에는 우물과 샘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다. 시골사람들이 5리(五里) 거리나 되는 곳에서 물을 길면서도 그래도 가까운 곳의 물이라고 일컫곤 한다. 어떤 곳에서는 하루종일 고작 한 번이나 두 번밖에 길지 못하는 곳도 있고, 소금기가 많아 짠 샘이 많다. 물을 길는 데는 반드시 나무로 된 통을 쓰는데 이는 물을 많이 길기 위함이며 등에 지어 나른다(무릇 짐이 많으면 대개 여인들이 등에 짊어진다).¹⁵⁾

14) 이태백의 이 시는 본래 ‘天台曉望(천태산에 올라 아침에 바라봄)’ 중 일부이다.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天台曉望 - 李太白 -

天台鄰四明 華頂高百越
門標赤城下 樓棲滄島月

憑高登遠覽 直下見溟渤
雲垂大鵬飜 波動巨鰲沒

風朝爭洶涌 神怪何翕忽
觀奇迹無倪 好道心不歇

攀條赤朱實 服藥煉金骨
安得生羽毛 千春臥蓬闕

15) 물을 길는데 쓰였던 목통(木桶)이란 큰 나무통의 속을 파낸 형태의 것으로 추정되며, 이 당

土産尤絶少獸但獐鹿猪最多獐(吾兒里)亦多而此外狐兔虎雄等皆無禽有雉鳥
鷓鴣而无鸛鵲等山菜藪(葜)蕨最多而香蔬(薺)朮人蔘當歸桔梗等皆無海菜
但藿牛毛青角而此外海衣甘答黃角等皆無陸魚但銀口種而已海族有生鰻烏
賊玉頭刀魚古刀魚等數種此外如絡締肚蠣蛤蟹蝦青魚銀魚石首魚等諸賤種
及雜種皆無焉

지역에서 나는 토산물(土産物)이란 몹시 적다. 들짐승[獸]이란 단지 노
루와 멧돼지가 가장 많으며 오소리[獭]도 많다. 이 밖에 여우 토끼 호
랑이 곰들은 모두 없다. 날짐승[禽]으로는 꿩 까마귀 솔개 참새가 있고
까치 황새 등의 새는 없다. 산채(山菜)로는 개나물 고사리가 가장 많고
향소(香蔬) 창출(朮) 인삼 당귀 도라지들은 없다. 해채(海菜)로는 미역
우무 청각이 날 뿐이고 이 밖에 김 감태 황각들은 모두 없다. 민물고
기[陸魚]로는 단지 은어(銀魚)가 있다. 해족(海族)에는 생복(生鰻) 오징
어 옥돔 갈치 고등어 등 여러 종류가 있고, 이 밖에 낙지 굴 백합 게
청어 은어 조기 등 여러 천한 종류는 모두 없다.

沙器陶器鋤鐵皆不産而稻絶少土豪貿陸地而食力不足者食田穀所以清酒絶
貴冬夏勿論用燒酒牛畜則多有價不過三四丁而味不及陸地者皆山野不食穀
物故也

사기(沙器) 도기(陶器) 유철(鋤鐵)은 모두 다 생산되지 않고, 벼[稻]는
매우 적다. 토호(土豪)들은 육지에서 거래하여 볍쌀을 사다가 쌀밥을
지어먹지만 힘이 모자란 일반 백성들은 잡곡만 먹는다. 그래서 청주(淸
酒)가 극히 귀하다. 겨울이건 여름이건 간에 소주(燒酒)를 사용한다. 소
는 많이 사육하나 값은 3, 4정(丁)에 지나지 않는다. 육질의 맛이 육지
만 못함은 소들이 모두 산야에서 나는 것만 먹고 곡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最可笑者地環巨海而塩不産(欲煮田塩如西海則無塩可耕以取汲欲煮海塩如東海則水
淡功百倍而所得絶少)必貿於珍島海南等處故民間極貴

가장 우스운 것은 땅이 큰 바다에 둘러있으면서도 소금이 생산되지 않

시까지는 물을 끄는 옹기류의 대표적 도구인 물허벅이 출현하기 이전의 형태로 보인다.

는다는 사실이다.(서해안에서처럼 소금밭을 일구려 해도 바닷물을 끌어들여 경작하기가 마땅치 않고, 동해안에서처럼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얻기엔 이곳 바닷물이 싱거워서 백 배의 공을 들여도 소득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도 해남 등에서 소금을 구입해야 하니 민간에는 이것이 지극히 귀할 수밖에 없다.

惟土產香蓴(俗名薰古)最多而五味子亦多而實深黑而大如濃熟山葡萄不可辨味又濃甘考本草產朝鮮者良又云味甘者爲上吾知我國產者實紫少味多酸猶見於本草意此土產者必高於天下無疑矣前此人皆不知但充杯盤之用吾始乾之滋潤異常今年則邑宰及吾皆多取作乾矣意欲雖少送去令君知之也時未畢乾也

토산(土產)으로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는 오직 향심(香蓴)(속명 ‘표고버섯’)이 있고, 오미자(五味子) 역시 많다. 특히 오미자는 그 열매가 매우 검고 크기가 짙게 익은 산포도와 같아 이것과 구별할 수 없으며 맛이 또 매우 달다. 『본초(本草)』를 상고해보건대 ‘조선에서 생산하는 것이 좋다’, 또 이르되 ‘맛이 단 것이 상품(上品)이다’라고 했다. 내가 아는 바 국내산 오미자는 열매가 보라색이며 적고, 신맛이 많다. 오히려 『본초』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이곳 제주산 오미자를 두고 이름이다. 천하에 이것의 가치가 제일 높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전에는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서 그저 잔칫상에 오르는 용도로만 이것을 충당하여 왔다. 내가 이것을 구해 말리기 시작했는데 알차게 윤기가 흐름이 보통이 아니다. 금년에 읍재(邑宰)¹⁶⁾와 내가 함께 그것을 많이 구해서 말리고 있다. 의욕에 비해 비록 적은 양이 될지라도 그대에게 보낼 예정이니 그리 알고 있기 바란다. 아직 시기적으로 덜 말려진 상태이다.

又有山果末應(명)實大如木瓜皮丹黑剖之子如林下夫人而異子差大味差濃蓋林下夫人之種而大者耳聞海南等邊海處或有之未知信否此外則无珍異陸地諸果如梨棗柿栗等雜種絕稀間有而全惡海松子全无松木亦甚稀吾服松葉僅取于遠地也

산과(山果)로서 말응(末應 - 명)은 그 열매의 크기가 모과[木瓜]와 같

16) ‘읍재(邑宰)’란 한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을 지칭함

고 껍질이 검붉으며 쪼개면 으름[林下夫人]과 같다. 그리고 다른 것에 비해 크기가 차이가 나고, 맛 또한 농도가 짙다. 대개 으름과 같은 종류의 열매가 큰 편이다. 해남 등의 해안가에서도 이것이 자생한다는 얘기가 있으나 믿기지 않는다. 이 밖에 육지에서 나는 여러 과일들과 달리 불리거나 진귀한 것들은 없다. 배 대추 감 밤의 잡종은 매우 드물고 간혹 있으나 품질이 아주 나쁘다. 해송자(海松子)는 전혀 없다. 소나무 역시 매우 적어서 내가 술잎을 따서 상시 복용하는데 멀리까지 가서야 겨우 그것을 채취해올 정도이다.

此地可珍者橘柚梔子榲子無患子山柚子二年木無灰木鸚鵡螺椰子(已上三物墜海螺椰子土人不知名行實陸上岸內得 地人作行瓢酒器謂之杏核)加時栗赤栗(二物乃橡實之類但不苦可作粥)良馬等也

이곳의 특산으로 보배롭다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귤유(橘柚) 치자(梔子) 비자(榲子) 무환자(無患子)나무 산유자(山柚子) 종가시나무[二年木] 무회목(無灰木) 앵무조개[鸚鵡螺] 야자(椰子)(이미 앞의 세 개는 바다를 따라 밀려 온 것들이다. 조개와 야자는 이곳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그 열매는 육상에서 나는 것이긴 하나 구하기는 해안 내에서 얻는다. 물 사람들이 길 떠날 때 술을 떠 담는 표주박으로 사용하는데, 이를 두고 살구씨앗이라고 일컫는다.) 가시울(加時栗) 적울(赤栗)(이 두 개의 열매는 도토리과 같은 종류로서 다만 쓰지 않기에 죽을 쑤어먹을 수도 있다.) 양마(良馬) 등이 있다.

橘柚九種有金橘(九月熟最早者)乳柑洞庭橘(二品十月晦時熟三品相上下而金乳實差大而濃甘洞庭差小而味爽然酸味稍勝)青橘(此品秋冬則極酸不可食經冬到二三月酸話適中五六月舊實爛黃新實青嫩同在一枝實爲奇絕至此時味甘如蜜和酷至七月則實中之核皆化爲水而味仍甘至八月九月至冬實還青核更成味極酸與新實無異方其酸時人賤之而不食又上三品方其時味佳絕故品第如此吾則謂此品乃第一品也)山橘(實小子如柚而味甘)柑子柚子(二品人皆知之)唐柚子(實大如水瓜可容一升餘而味及柚子然巨實懸乘黃爛可稱)倭橘(實大次於唐柚而味又不及唐柚斯爲最下)凡此九種枝葉大同小異惟柚最多刺而實皮最香惟柑葉最厚而實皮最香薄意者此二品最下故也餘品刺不甚(柑亦然)而葉疎狹實皮嗅不甚香而嚼甚香烈且辛(辛唐柚倭橘束皮亦然)食不堪而藥最效意者品高故也樹高不過丈餘而大者或如柱喜叢生幹枝亦大多至數十相糾如龍盤礪磊硯奇古勁瘳皮理古者黃紫苔剝新者青駁可愛其葉四時長綠此地

無一可觀維此樹林眞奇勝也

귤유(橘柚)에는 아홉 가지의 종류가 있다. 곧 금귤(金橘)(9월에 익으니 가장 이른 것이다.), 유감(乳柑), 동정귤(洞庭橘)(이 2종은 10월 그믐에 익는다. 3종이 서로 앞뒤가 매겨지는데, 금귤은 열매가 조금 커서 매우 달고, 동정귤은 조금 작으나 맛이 시원하다. 그러나 산미는 약간 더하다.), 청귤(靑橘)(이 품종은 가을과 겨울에는 매우 시어서 먹을 수 없으나 겨울이 지나 2, 3월이 되면 시고 단맛이 알맞게 된다. 5, 6월이 되면 묵은 열매는 질누렇게 되고, 새 열매는 새파랗게 되어 한 가지에 새 열매 묵은 열매가 동시에 매달린 것을 보면 실로 놀랍다. 이 때가 되면 맛이 달아 마치 꿀을 초에 버무린 것 같다. 7월이 되면 열매 속의 씨가 다 변하여 물이 되고 맛도 따라서 달다. 8, 9월이 되고 겨울이 되면 열매는 다시 푸르고, 씨는 다시 생겨서 맛이 아주 시어서 새 열매와 다름이 없으므로 한창 신 때에는 사람이 천히 여겨 먹지 아니한다. 또 위의 세 가지 품종은 맛이 아주 좋으므로 품질의 차례가 이와 같이 되었으나 나로서는 청귤, 이것을 제일로 치겠다.), 산귤(山橘)(열매가 작고, 씨가 유자와 같아 맛이 달다.), 감자(柑子), 유자(柚子)(이 두 가지 품종은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다.), 당유자(唐柚子)(열매의 크기가 모과와 같아 한 되 [一升] 이상 찰 만큼 하지만 맛은 유자만 못하다. 그러나 커다란 열매가 달리고 누렇게 무르익은 것은 진기하다 할 것이다.), 왜귤(倭橘)(열매의 크기가 당유자 다음으로 크고, 맛도 또 당유자만 못하여서 이것은 품질이 최하가 된다.)이다. 대개 이 아홉 가지 품종은 가지와 잎이 대동소이하다. 오직 유자(柚子)는 가시가 가장 많되 열매 껍질은 향기가 가장 뛰어나고, 오직 감자(柑子)는 잎이 가장 두터우나 열매껍질은 가장 향기가 박하다. 생각하건대 이 두 품종이 최하인 까닭이다. 나머지 품종들은 가시는 심하지 아니하나 (감자도 같음) 잎은 성기고 좁으며, 열매껍질은 냄새가 그리 향기롭지 못하나 씹으면 아주 향기롭고 시원하다. 또한 맛이 시어서(신맛의 당유, 왜귤의 껍질도 같음) 먹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이나 약으로는 가장 효과가 뛰어나기에 품질이 높다. 나무의 높이는 한 장(丈) 남짓에 지나지 않으나 큰 것은 혹은 집의 기둥과도 같다. 더부룩하게 자라남[叢生]을 좋아하고, 가지와 줄기도 또한 크며 많은 것은 수십 개에 달한다. 서로 얹혀져 있음이 마치 용이 서린 것과도 같이 뒤섞여 있어서 괴상하게 보인다. 수령이 오래되어 껍질이 굳어지고 무늬가 오랜 것은 누런 보라색을 띠고, 이끼가 벗겨져 새로운 것은 푸르고 얼룩져 사랑할 만하다. 그 잎은 사계절 언제나 푸르다. 이 지역에 불만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으나 오직 이 귤나무 숲만은 참으로 진기한 볼거리이다.

吾之所居在州城東門外半里金剛社舊寺基无四隣地頗幽僻立草屋數楹制依北土頗明敞內有小溫房一房外有末樓涼軒間半亦得陽得月軒簷下有老柿樹一株厚葉成陰常坐此軒而此樹近可捫也屋圍而石牆以醜石累積高丈餘上施鹿角木牆去簷僅半疋高而圍狹奉國法也然石牆高狹土俗皆然以防盲風饕雪况吾居既狐寇盜亦可慮使吾自計不得不爾但稍寬則有矣牆既礙眼無好狀雖栽植似亦無趣且吾時日不能自保無久遠心不暇以栽植爲意今得君言栽檜老蒼之事能起吾趣自明春欲列栽柑橘榲爲意

내가 거처하는 곳은 제주성 동문밖 반리(半里) 정도 떨어져 있는 금강사(金剛社)로서 옛 절터이다. 사방에 이웃이라곤 없는 외딴 변두리이다. 초가집 두어 칸이 들어서 있는데 북쪽 언덕을 의지하고 있으니 밝고 시원한 곳이다. 안채는 온돌방이 하나 있고, 밖으로는 한 칸 반쯤 되는 시원한 대청마루가 있어 별을 쏘이거나 달구경도 할 수 있다. 처마 밑으로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무성한 잎이 그늘을 만들면서 늘 마루에 앉아 이 나무를 가깝게 어루만지면서 지낼 수 있다. 집 울타리는 돌담으로 에워싸여 있는데 들쭉날쭉 돌이 쌓여 한 길 남짓이나 된다. 위로는 녹각목(鹿角木)을 설치해놓았고, 담장은 처마 밑 겨우 반 필(疋) 정도의 높이로 좁다랗게 쌓여 있다. 이렇게 대체로 돌담을 높고 좁게 쌓는 것은 국법(國法)에 따르는 일이긴 해도 이 고장의 풍속으로서 바람과 눈보라를 막기 위함일 것이다. 하물며 내가 거처하는 곳은 이미 외로운 곳이고 도적이 들이닥칠 우려 또한 있는 곳이다. 나로 하여금 스스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만든다. ‘부득이 당신은 다만 조금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담장은 이미 나의 시야를 막아놓아 좋은 볼거리가 하나도 없다. 비록 나무를 심는 일은 흡사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으리라. 게다가 나는 시시 때때로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는 몸이다. 원대한 마음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여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나무심기로서 내 뜻을 담을 수 있기에 그렇다. 이제 그대에게 얻어들은 말 가운데 전나무를 식재하여 푸르게 가꾸겠다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의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네. 봄이 되면 감나무 굴나무 비자나무를 줄지어 심고 싶어할 게 자명한 일이라는 게 내 생각이라네.

屋牆外二十許步正北有古梨樹一株高丈餘枝疎葉薄非好樹暫治而亭之環以苦竹然地勢高遠則北望滄海(海去亭一里許)楸子諸島歷歷眼底稍遠則西望城中村烟官柳及城南果園(在內城之南外城之內前泉之源乃官植橘柚之園外城爲泉重築里餘使泉在城內此園去吾亭半里呼聲不遠)橘林頗有景致最近則俯臨金剛社果園(亦官園)橘柚溝植園去亭可五六十許步限以石牆然有小竹逕可通時得逍遙其下玉葉金實青黃橘爛劈之香噴君所謂長歌橘柚林斯時也不佞然一延頸相憶耶惡地斯亭有少賴焉

집과 담장 사이 20보정도 떨어진 곳 정북 쪽으로 오래된 배나무 한 그루가 서있다. 높이 한 장(丈) 남짓하고 가지는 성기고 잎새는 부박하여 좋은 나무가 아니다. 잠시 동안 자라다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주위는 어렵사리 대나무로 둘러놓았다. 그러나 지세는 높고 먼 편이어서 북쪽으로 멀리 푸른 바다가 보인다(바다는 이곳 정자에서 약 1리 정도 떨어진 거리임). 추자도의 여러 섬들이 역력히 한눈에 들어온다. 조금 더 나아가 서쪽을 바라보니 성중(城中)이다. 마을의 밥짓는 연기와 관청의 늘어진 버드나무, 그리고 성남의 과원(果園)(성안의 남쪽 외곽 내에 있다. 앞에는 샘의 원천이고, 이내 관에서 귤유(橘柚)를 심은 동산이다. 외성이 샘인 샘이고 증축한 게 몇 리나 된다. 샘을 성내에 있게 배치한 샘이다. 이 과원에서 내가 머무는 정자까지는 반 리(里) 정도의 거리로서 부르는 소리가 가깝게 들릴 정도이다.) 귤림(橘林)은 경치가 자못 빼어나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금강사(金剛社)는 과원(果園)(역시 관에서 관리하는 과원이다)에서 불과 엇어지면 코닿을 사이에 있다. 귤나무 유자나무가 심어져 있고 과원에서 정자까지는 약 5, 60보 정도의 거리이다. 돌담으로 한계를 설정해놓았지만, 작은 대나무 숲길이 나있어 다닐 수 있다. 시간이 나면 종종 그 밑을 소요하며 걸곤 한다. 옥 같은 잎새와 금 같은 열매는 푸르스름하기도 하고 누르스름한 귤의 모습이다. 쪼개면 뽀얀내는 향기야말로 그대가 말한 소위 장가(長歌) ‘귤유림(橘柚林)’을 떠올리게 한다. “아, 이 날 이 때 동안 길 잃어 헤매지 않고 한결같이 묵 놓아 기다리고 바라던 바, 서로 기억할 테지.” 모진 곳에, 나의 이 정자가 있어 다소 신뢰를 얻은 바가 있음이라 여겨지네.

又吾居幸近泉發源城南果園之東隅源發卽大(可如福泉洞水)流出東城底以資

吾汲用(汲處僅四十步許)冷冽如冰(地本無冰賴此泉滌煩又州夏日氷向于此)但下流汚不可美翫(汲先既多勢不得不汙)至海口成潭(至此水清又有清潭深處人不得行可泛舟中産銀唇最多傍有蘆葦之屬稍有江湖之幽趣吟吟之處)産銀口魚或網得或釣得海有小魚數種亦可坐岸而釣如此似差可而興味甚淺不如清江澗溪之樂蓋坐處無小可者故也海釣則又風浪洶瀾絕少安帖之日尤無淡雅之味

또한 다행하게도 내가 거쳐하는 곳 가까운 곳에 샘물이 솟아난다.¹⁷⁾ 성남(城南)의 과원(果園) 동쪽 모퉁이로 흘러들면서 수원(水源)이 곧 커지는데(복천동(福泉洞)¹⁸⁾ 골짜기의 물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동쪽 성 밑으로 흘러나온다. 내가 식수로 이용하는 곳(물을 길는 곳이 40보 정도의 거리에 있다.)의 물은 차갑기가 얼음과 같다(이 땅에는 본래 얼음이라고는 없다. 이 샘이 그런 고민을 한꺼번에 씻어주기에 제주의 여름날 얼음 대신 이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하류 쪽은 더러워서 이용하여 놀 수 없다(물을 길는 일도 이미 많았고, 땀을 씻어내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바다 입구 쪽에 다다르면 못을 이룬다(이곳에 이르는 물 또한 맑은데 깊고 푸른 연못이 자리해 있다. 배를 띄워야 지나갈 수 있는데, 은어(銀魚)가 가장 많으며, 곁에는 갈대 종류의 풀들이 자란다. 얼마간 강호(江湖)의 고상한 취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 시를 읊조릴만한 곳이다.). 은어[銀口魚]가 나는데 그물로 혹은 낚시로도 잡을 수가 있다. 바다에서는 작은 물고기들이 여러 종류가 잡히는데, 해안 둔덕에 앉은 채로 낚시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엇비슷한 차이의 방식의 고기잡이는 그 흥미가 매우 보잘것없는 것으로서 푸른 강 한가운데서 배를 타고서, 혹은 계곡의 골짜기에서 즐기는 즐거움에는 비할 바가 못된다. 대개 앉아있을 만한 장소로 협소하지 않을 곳을 찾을 수 없기에 그렇다. 바다낚시 또한 풍량의 거세어 편안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날이 지극히 적은 편인데 담박하고 고상한 맛을 느끼기에는 더욱 아니다.

17) 김정이 거쳐하던 이곳의 샘물을 두고 ‘판서정(判書井)’이란 명칭이 붙여지기도 했다. 이원진(李元鎭)의 『담라지(耽羅志)』 ‘고적(古跡)’조에는 판서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판서정 ; 가락천 동쪽에 위치해 있다. 물이 암석 사이로 흘러나오는데 물이 차고 맛이 달다. 충암 선생이 귀양살이 할 적에 판 것이다.”<判書井 ; 在嘉樂川東北脈出石間清冷味甘沖庵謫居時所鑿>

18) 여기서 비유를 든 ‘복천동(福泉洞)’은 작자 김정의 고향인 충북 보은에 있는 곳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곳에는 복천암(福泉庵)이라는 유명한 암자가 있는데, 속리산 법주사의 산내 암자로서 신라 성덕왕 19년(720)에 창건된 고찰이다. 특히 조선조 세조(世祖)가 이곳 암자에 이르는 길목에 위치한 목욕소(沐浴沼)에서 목욕을 하고 난 후 난치병인 피부병을 치료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且所偕非土人卽方生(生名舜賢判官之妻甥學儒於吾輩事頗聞風持意足多稍可談話而染俗乏雅於江湖無入處然海外遇斯人豈非幸甚歟)豈足發吾興旣無意中人可共如君所言略無心悰且國法可畏故其出甚稀一朔不過或一或二或踰朔不出梨亭亦不甚數出橘園尤稀往踽踽獨步祇增索寞耳(橘熟時則嫌亦宜遠官有直守)

또한 더불어 함께 하는 이로 이곳 본토박이[土人]가 아닌 사람인 방생(方生)¹⁹⁾(그의 이름은 ‘순현(舜賢)’이며 제주 판관(判官)의 처조카라고 했다. 우리들 에게서 유학을 공부하는데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것이다. 지니고 있는 뜻이 만족함을 느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이긴 하지만 세속에 물들어 아정(雅正)함이 결핍되어 있어 강호(江湖)에 처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그렇지만 바다 밖 먼 곳에서 이런 사람이나마 만날 수 있음이 어찌 다행스런 일이 아니겠는가?)이란 자가 있는데, 그이가 어찌 내 흥취를 일으키기에 흡족하기야 하랴? 이미 뜻하지 않게 만난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음은 그이가 그대와 같이 말하는 바가 간략하고 무심코 즐겁게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법이 두렵기에 외출 또한 특히 삼가 하여 그 횃수가 심히 적은데, 보름에 불과 한 번 아니면 혹 두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이다. 심지어 보름 내내 한 번도 나가지 않을 때도 있다. 이정(梨亭)에 나감 또한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다. 귤원(橘園)을 거닐은 더욱 드물다. 혼자서 터벅터벅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접고서는 쓸쓸하게 사색하는 것이다(귤이 익을 시기에는 오해를 살 혐의 역시 의당 멀리해야 하는데 관에서 직접 나와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骨肉隔絕親知悠緬昔時遊從凋喪已多天外孤身幾嘗世故尋常處心固未嘗怡然順理而忽然念到亦未嘗不悵然以感也

골육(骨肉)이 멀리 떨어져 있어 단절되고, 친지의 소식도 아득한데, 옛날 나와 함께 놀던 이들 가운데 벌써 저 세상에 간 친구들도 많을 테지. 하늘가에 붙인 외로운 이 몸! 이제 얼마나 더 세상 번고를 맛보아야 할 것인지. 내 일찍이 ‘평상시의 마음먹기’[尋常處心]²⁰⁾로는 순리로

19) 여기에 등장하는 ‘방생(方生)’이란 자는, 작자인 김정에게 우도(牛島)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 주기도 해서 그의 유명한 작품인 ‘우도가(牛島歌)’를 탄생시키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즉 우도가의 원제명이 ‘聞方生談牛島歌以寄興(문방생담우도가이기흥)’인데, 곧 ‘방생의 우도 이야기를 듣고서 노래를 지어 그 감흥을 기탁함’이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평상시 낚시도 함께 즐기며 김정의 문하에서 수학하기를 즐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 문장이 전개되는 내용으로 보아 특히 ‘사생관(死生觀)’에 대한 작자의 심경을 이렇게 담담하

서 모든 것을 태연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가. 홀연히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고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처량한 느낌마저 온전히 떨어버릴 수는 없구나.

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